

① 공장 외부 모습 ② 테이프 커팅식 ③ 김상덕 대표는 쌀 기증을 하였다.

글·사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고품질 제품 생산기반 구축 계열화사업 탄력 성실에프앤에프, 최신육가공공장 준공

성실에프앤에프는 최신 설비를 갖춘 육가공공장을 준공함에 따른 육가공사업 부문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계열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F&F영농조합법인(대표 김상덕)은 지난 4월 30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산 136-4번지에 육가공공장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을 비롯해 광주 축협 안명수 조합장, 함평군의회 정현철 의원, 오리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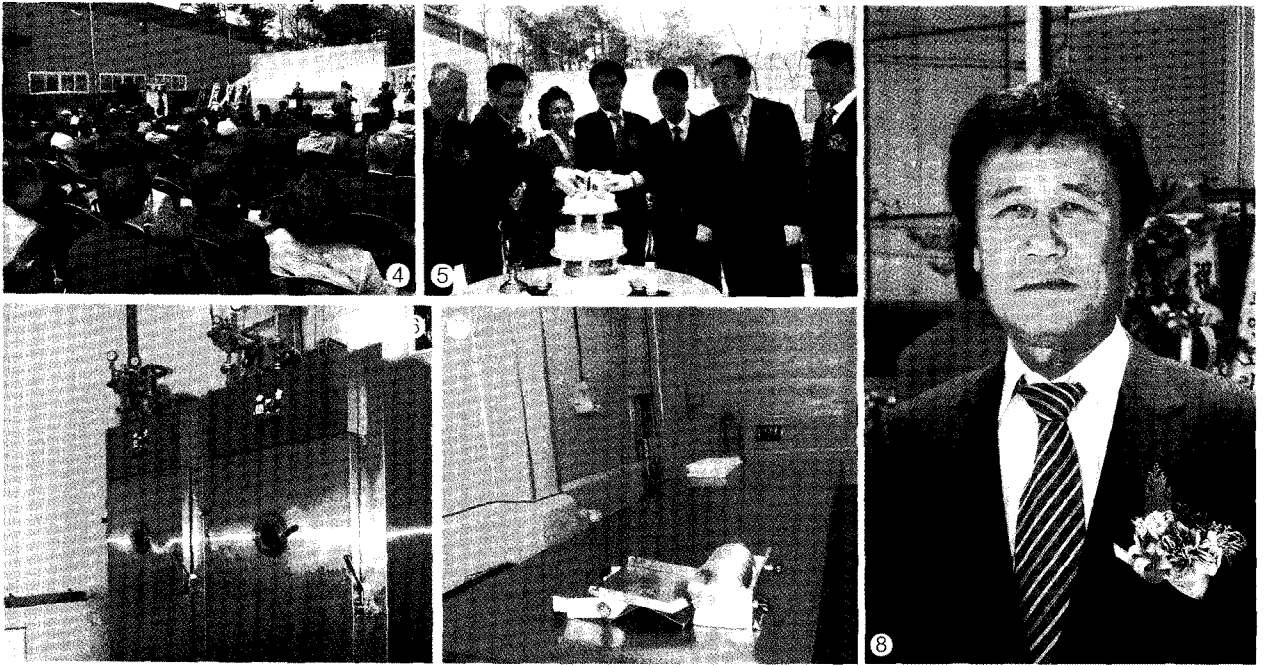
성실F&F영농조합법인은 40억원을 투입해 최신 설비를 갖춘 육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준공한 성실F&F 육가공공장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에 위치해 있으며 1천500여평의 부지위에 720평 규모로 지어졌다.

성실F&F는 그 동안 기존 육가공공장에서 광주, 대구, 경상권 등에 통오리와 단순 가공품 위주로 단체급식소 등에 납품해 왔으나 이번 육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육가공공장에서는 일일 오리훈제 2천500kg을 비롯해 포장육 6천kg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리훈제바베큐를 비롯해 오리양념육, 포장육 등을 생산하게 된다.



④이창호 회장의 인사말 ⑤케이크 절단식 모습 ⑥훈연기 ⑦가공장 내부 모습 ⑧성실 F&F영농조합법인 김상덕 대표

이에 따라 성실F&F는 사육에서부터 종오리, 부화장, 가공장 등 계열화 업체로서의 기반 구축이 완성됐다. 성실F&F의 김상덕 대표는 1978년 오리사육업을 시작한 이후 1985년 부화 및 종오리 농장 설립, 1999년 오리 계열화 사업을 시작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주)성실을 설립해 2007년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듬해에 친환경 인증 획득, 2009년 HACCP 인증 획득 등 고품질의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 성실F&F 육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2만5천수 규모의 성실농장과 주당 6만수 규모의 부화능력을 갖춘 부화장과 25개 계열농가에서 주당 6만수, 월 25만수의 오리를 생산할 수 성실농산영농조합법인 등 사육, 종오리, 부화, 가공 등 계열화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편 지난달 열린 준공식에 참석한 이창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오리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오리업계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오리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종오리 사

육, 종오리검정사업,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에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축협 안명수 조합장은 “김상덕 대표는 광주축협 조합원으로 오리 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축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리 산업에서 성실F&F가 오리가 주요 축산물로 대접받으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덕 대표는 준공식에서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을 새롭게 마련하게 됐으며 30여 계열농가들과 함께 최고의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훈제오리 생산을 위해 2대의 훈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중 2대의 훈연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훈제오리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현재 주당 6만수 규모의 가공능력을 주당 10만수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